



지난해 열린 흥부제 자료사진.

# ‘볼거리 · 즐길거리 다 있네’

19일부터 21일까지 남원 흥부제

남원시는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56회 흥부제를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우애 · 나눔 · 보은 · 행운'을 주제로 사랑의 광장과 광장주차장, 요천일원에서 연다. 이번 흥부제는 나눔행사, 기념행사, 공연 · 경연, 연계행사 등 4개 분야 21개 종목으로 구성돼 나눔의 흥부문화를 공유하며, 함께 즐기는 흥(興)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축제 첫날인 19일에는 저녁 6시 30분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개막식 및 남원시립국악원의 식전공연 후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축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남원 시민의 장'과 우애와 사랑의 '흥부가족상' 시상식이 열린다.

이후 저녁 7시 40분에는 흥부제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가 지난해보다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밤 하늘을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흥부제에서 놓쳐서는 안 될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있을 첫날 개막 축하공연과 둘째날 '흥부樂놀부樂 한마당'을 꼽을 수 있으며, 19일 저녁 개막 축하공연으로 더보이즈, 노라조, 남진, 박상철, 김용임, 카밀라 등이 출연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20일 저녁 7시 펼쳐지는 흥부樂놀부樂 한마당에서는 한영애와 자전거 탄 풍경, 소리새 등 7080가수들의 가을밤 콘서트가 열린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20일 오후 5시와 21일 저녁 6시 30분 두차례의 수준 높은 축하공연과 폐막공연을 펼쳐, 사랑의 광장 행사장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을 위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흥부놀이터와 예천예술단의 사자 탈춤, 서커스, 마임 등 특색 있는 볼거리도 제공된다. 사랑의 광장 옆 관광단지 주차장 흥부정터에서는 알뜰장터와 막걸리와 추어탕부스, 푸드트럭이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할 뿐 아니라 익살맞은 품바 공연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흥부제 연계행사로 흥부의 나눔정신을 재현하는 '흥부사람 떡 나눔 행사' 남원지역 예술가들의 사진 · 그림 전시 및 공연행사인 남원예술제, 각 읍면동 농악단의 흥을 겨루는 흥부풀 남원농악경연대회, 남원 도예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남원국제도예캠프가 열리고, 남원 동편제 관소리를 알릴 금과 강도근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

### 이형열, 명예보유자로 인정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81)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이씨는 2000년 12월14일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평생 해당 종목 보전, 전승, 보급을 위해 헌신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졌다. 문화재청은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종묘제례'는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행하는 제창의식이다. 종묘제례악과 함께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뉴시스



'종묘대제'

## 허수경 시인 별세...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재독시인 허수경(54)씨가 암 투병 중 3일(한국시간) 별세했다.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등을 통해 외로움과 상처를 노래한 시인이다. 경남 진주 출신인 고인은 경상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상경해 방송사 스크립터 등으로 일했다. 1987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하면서 시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펴낸 첫 시집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는 문단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역사의식과 시대감각을 녹여넣은 민중의 삶을 주저 없이 펼쳐낸 과감함 때문이다. 우리말의 독특한 가락을 살려낸다는 평도 받았다. 1992년 독일로 갔다. 뮌스터대학에서 고대근동고고학을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인 지도교수와 결혼했다. 이후 종종 한국을 찾았지만 현지에 터전을 잡았다. 그러나 모국어로 시집, 산문집, 장편소설 등을 꾸준히 펴냈다. 특히 2001년 세번째 시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니'는 한국과 독일의 경계, 고고학에 기반한 도시의 폐허를 바라보는 시선, 모국어를 향한 진득한 그리움 등을 문체 영혼을 노래한 역작으로 통한다. 2012년 발간한 다섯 번째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으로 고고학적인 세계와 국제적 시야를 바탕으로 깊어진 사유를 증명했다. 시인인 김민정(42) 난다 대표를 통해 말기암 투병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고인은 병문안 등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언어를 정리해왔다. 2003년 펴낸 에세이집 '길모퉁이의 중국식당'을 새로 편집한 '그대는 할말을 어디에 두고



왔는가'를 최근 펴냈다. 싱어송라이터 한희정(39)이 그녀의 작품에 멜로디를 붙인 '바다'를 발표하는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었다.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산문집 '모래도시를 찾아서', 장편소설 '박하' 등도 냈다. 동서문학상, 전속희문학상, 이육사문학상을 수상했다. 고인은 뮌스터에서 영명했다. 고인의 시집을 출판해온 문학과지성사는 "30년 가까이 함께했던 그곳 가족 이웃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목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전주시, 우수 문화콘텐츠 널리 알린다

### 부산 넥스트콘텐츠페어 참가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의 우수 콘텐츠 전시를 통해 전북지역 콘텐츠 기업의 독창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홍보한다. 시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8 넥스트 콘텐츠 페어'에 참가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벡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행사이다. 행사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AR·VR 콘텐츠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송효철 기자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캐릭터·이모티콘·애니메이션·VR·AR·웹드라마·드론기반 융합 미디어아트쇼 등 지역 기반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아시아 문화 심장지'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애니멀리, (주)스팀브로카, (유)올빼미하우스, (주)플러스튜디오, 텔로스, 시그마텔, (주)편웨이브, (주)하너비랩, 리모샷, (주)씨티데이즈 등 총 10개사로, 각 콘텐츠 특성에 맞게 개별 부스와 홍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우수 콘텐츠를 전국에 알리고, 기술력과 시장성도 검증받을 것"이라며 "특히 매출 신장으로 유관산업의 저변을 견고히 하고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